

‘윤리경영’, 그 기독교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문 시 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 기독교윤리학)

- I. 들어가는 말
- II. 윤리경영, 그 비전과 한계
 - 1. 윤리경영의 비전
 - 2. 윤리경영의 한계
- III. ‘윤리경영, 그 기독교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 1. 윤리경영과 기독교윤리의 접점 책임
 - 2. 기독교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 IV. 나오는 말

• 국문초록 •

윤리경영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이 글은 윤리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기에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거시적 통찰의 틀에서 제안함으로써, 윤리경영의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윤리경영이 표방하는 목표와 비전은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윤리경영을 통해 윤리를 지배하고 경영하려는 또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윤리경영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경영이론에 그쳐서는 안되며 학제간 연구를 통해 보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윤리경영이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독교윤리가 말하는 책임의 개념을 연결점으로 상정하고, 경제적 또는 법적 책임의 영역에 머물 것이 아니라 통진적 의미의 도덕적 책임의 단계에로 고양되어 기업활동의 공동체적 요소 및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목적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의 구현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핵심단어: 윤리경영, 책임윤리, 통진적 책임

I. 들어가는 말

기독교는 ‘윤리경영’(moral management)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윤리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그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기독교적 성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의 윤리와 그 과제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윤리의 중요한 주제이며, 이제까지의 기독교 윤리학에서 청지기적 관점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윤리 또는 경제윤리에 관한 활발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 대단히 새로운 무엇을 발견하거나 발명을 선언하기 보다는 윤리경영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성찰하고 그 기독교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논의와 실천노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그 방향의 설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들을 재점검할 수 있는 단초를 제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구체적인 지표나 통계수치 및 보도자료들을 인용하고 나열하는 방식 보다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성찰의 방법론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윤리경영이라는 새로운 요구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 내지는 하나의 평론이나 훈수 두기 썩으로 오해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그 본령은 기업경영 및 경제활동에 관한 기독교 윤리학적 성찰을 통해 윤리경영에서 보완되고 강조되어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II. 윤리경영, 그 비전과 한계

1. 윤리경영의 비전

윤리경영은 기업윤리(business ethics)의 다른 모습으로서, 이는 기업경영에서 직면하는 행위의 옳고 그름 및 규범적 판단기준과 가치를 경영에 반영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른 말로는正道경영(正道經營)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기업활동이 사회적, 경제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것이 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대사회적 책무를 완수하려는 노력이다.

1976년 미국 벤틀리대학에 기업윤리센터가 설립되었을 당시만 해도 기업윤리는 일종의 모순어법(oxymoron)이라는 조롱의 대상이었으나,¹⁾ 지금은 반부패라운드 또는 윤리라운드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어느덧 세계 각 지역에서 기업의 윤리와 투명성, 사회적 공헌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은 스스로 윤리적 이니셔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의 신뢰를 선점하려 노력하고 있다.²⁾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윤리란 기업경영에 윤리적 요소가 배어있게 하는 일이다. 즉 지배구조, 노사관계, 이윤배분, 상품과 서비스의 질, 하청업체와의 관계 등 모든 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이며 책임적이어야 하는 것이 기업윤리이다.³⁾ 그리고 기업윤리에

1) 허승호 외, 윤리경영이 온다. 동아일보사, 2004, 12면

2) 같은 책, 23면

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⁴⁾ 첫째, 경쟁자에게 공정한 경쟁 (불공정 거래 및 거래선 제한과 담합, 기업비밀침해 등의 척결), 둘째, 고객에게 성실과 신의 (유해 상품의 제조 및 판매금지, 허위과대광고와 허위효능표시 금지), 셋째, 투자자에게 공평과 형평 (내부자거래와 인위적 시장거래, 분식결산 등 금지), 넷째, 종업원에게 인간존엄성 (고용차별의 개선, 프라이버시 침해의 금지, 작업장의 안전성 제고 등), 다섯째, 지역사회에 기업시민의 책무 (산업재해 및 공해방지, 산업폐기물 무단처리 금지 등), 여섯째, 정부에게 엄정한 책무 (탈세, 뇌물, 정치헌금을 하지 않고 허위보고와 탈세 등의 금지), 일곱째, 외국 정부와 기업에게 공정한 협조 (덤핑과 문화파괴, 법규악용 등의 금지), 여덟째, 지구환경에 대한 공생관계의 모색 (환경오염의 방지, 지구환경규정준수 등)이다.

물론 윤리경영이 대두하기까지 기업활동의 다양한 불합리성과 불투명성 또는 부도덕성이 전제된 맥락에서 기업의 윤리적 쇄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결합되었다. 회계부정사건을 비롯하여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 등 기업이 대소비자 관계와 대사회적 관계에서 청산되어야 할 부도덕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투명하고 도덕적인 기업운영으로 책임있는 경영, 정도를 걷는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는 여러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경영이란 경영의 혁신과 같은 기법의 발전이라기 보다는 책임의 각성 또는 윤리적 전환의 선언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윤리경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는 것은 논의의 방향이 건전하게 잘 잡힌 것이라고는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해서 윤리경영이 곧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무조건 찬성할만한 내용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윤리경영에 관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성찰과 그 보완을 위한 윤리적 모색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2. 윤리경영의 한계

윤리경영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를 가동시키기 위한 학계의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판물 통해 그 이론과 전략들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각 기업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의 표출로서 기업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하여 윤리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들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윤리경영의 학문적, 경제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윤리경영은 아직도 초보적인 논의의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상당부분 피상적 이해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윤리경영을 경영성과 제고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이른바 윤리라운드(ethics round)에 이끌려 마지못해 따라가야 하는 귀찮은 타율적 국제기준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윤리경영이 미국 및 서구사회의 중요한 흐름으로 부상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제야 붓물 터지듯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과 기업들의 경쟁적 홍보로 이어지는 것은 정책당국의 눈치를 살피는 등 타율적인 요소들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언론 매체의 경제면에도 ‘윤리경영’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 규모의 회사들까지 윤리경영을 줄이어 선포하였다. ‘윤리경영’은 인터넷의 검색우선순위에 들 정

3) 신기형, 기업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 미간행발표문, 한국기독교윤리학회-복음주의윤리학회 공동학회 발표문 20년. 2004

4) 이 부분은 www.ks.ac.kr에 올려진 강의노트, ‘21세기 기업모델: 윤리적 기업’에서 요약, 인용하였음

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여 왔다. 이제는 확산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선포'에만 머물고 있는 단계에서 더욱 적극적인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울려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윤리경영의 확산속도나 구체적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긍정적인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주체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속도의 완급 및 실천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만큼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 보다도 더 중요한 우려의 소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기업의 경영혁신전략의 일부분 또는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한 소품일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쓴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서술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필자 역시 윤리경영이 그 본질에 있어서 올바른 이해를 전제하지 않으면, 일종의 '쇼'로 전략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든 움직임이 한 순간의 유행이나 트렌드로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할 것처럼,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리경영이라는 화두가 기업의 생색내기나 홍보수단으로 전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와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윤리경영이 그 비전을 따라 윤리적 경영 또는 경영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아니라, 자칫 경영적 마인드에 의한 윤리의 경영이라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윤리적 의미의 경영과 경영마인드에 의한 윤리의 지배 또는 이용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Ⅲ. '윤리경영', 그 기독교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1. 윤리경영과 기독교윤리의 접점, 책임

우리는 윤리경영에 대한 혼수두기의 차원을 넘어 그 방향설정을 위한 기독교윤리학적 성찰을 책임의 관점에서 진행시킬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은 윤리경영에 대한 새로운 발명이나 이론의 추가사항이라기 보다는 윤리경영의 거시적 목표설정상의 보완 내지는 통찰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윤리경영이 적당한 제스처나 벤치마킹 스타일의 흉내 내기에 그쳐서는 안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윤리경영을 책임의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은 그 이론적 논의의 과정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론가들에 따르면,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시장의 윤리, 즉 시장의 질서를 준수하는 동시에 사회적 실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즉 법과 제도의 준수는 물론이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의미한다.⁵⁾ 이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말하자면, 윤리경영은 경영전략이거나 기업의 홍보수단 또는 21세기의 트렌드라는 관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책임의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5) 전경련 윤리경영 T/F팀, 윤리경영, 이해와 실천, FKI미디어, 2004, 18면

거시적으로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생각에는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식 기업윤리(business ethics)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한 경영방식이나 회계제도, 기업의 기부행위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 유럽의 상황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신뢰경영의 흐름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그 특유의 기업윤리 움직임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⁶⁾ 말하자면, 미국식 기업윤리는 주주(shareholder)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기업, 노동자, 투자자, 정부, 사회단체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동등하게 중시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유럽식 기업윤리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⁷⁾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윤리경영이 본질상 책임의 윤리이어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에 대한 성찰로부터 그 올바른 이해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윤리경영을 통해 기업은 투명성과 가치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증할 수 있어야 하며, 윤리경영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도 그것이 기업활동의 발목잡는 요소라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경영인 역시 전문직업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윤리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책임의 수행은 물론이고 기업의 경영행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자율과 책임이 동시에 요청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경영은 본질적으로 책임의 윤리와 연결된다.

이렇게 본다면, 윤리경영의 본질은 개인과 기업 혹은 집단 및 법인의 책임에 관한 사회적 맥락을 전제로 하는 셈이다. 이처럼 윤리경영의 본질에 책임이라는 윤리적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윤리학자들로 하여금 책임에 관한 논의들을 경영이라는 분야에 적용하는 응용윤리(applied ethics)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말하자면,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윤리경영은 일종의 신학적 원칙과 윤리적 이론들의 응용의 장(場)이라 할 수 있겠다.

일찍이 인간을 책임적 존재로 인식하였던 니버(H. R. Niebuhr)의 이론을 위시한 책임에 관한 기독교윤리학적 논의들은 인간과 그 모든 관계적 요소들을 책임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통찰에 힘써 왔다. 이제까지의 책임윤리에 관한 논의가 유전공학을 비롯한 테크놀러지와 책임, 문화와 책임, 그리고 환경과 책임 등 다양한 논의들로 확산되고 적용되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윤리경영을 책임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것은 윤리경영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방향타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기독교윤리가 제안하는 책임의 틀 안에 윤리경영이론을 종속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윤리경영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타당한 실천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책임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윤리경영을 경영학의 원리와 이론으로부터 이탈시켜 별도의 윤리이론으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일종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논의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6) 같은 책, 58면

7) 같은 책, 24-25면

2. 기독교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이제까지 개괄적으로 조망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는 윤리경영이 본질적으로 책임의 문제와 연관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윤리경영의 핵심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학제간 사고의 증진을 위하여 기독교윤리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인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기독교신앙인으로서의 기업가와 기업종사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을 담은 것이 아니라 포괄적 의미에서 기독교적 통찰을 제안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책임개념의 통전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경영이 책임의 윤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대부분의 윤리경영이 말하는 책임의 개념 자체가 통전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다. 윤리경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설명이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 주로 법률적 의미의 책임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공동체를 위한 자선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대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질서의 준수와 그와 관련된 경제적이고 법적인 책임의 이행을 주축으로 삼고 있다.

윤리경영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책임이다. 이는 기업본연의 존재목적이라 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여 기업을 지속하고 투자자들에게 보상가능한 이윤을 창출할 책임을 말한다. 둘째, 법적 책임이다. 이는 사회가 법을 통해 만들어 놓은 규칙의 틀 안에서 경영해야 할 법적 책임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되었다. 셋째는 자선적 책임이다. 점차 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이외에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이 요청되고 있다. 여기에서 윤리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종합해 본다면, 결국 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며 자선적 책임이란 경영활동과는 직접 관련성이 적은 문화활동과 자원봉사 등 자발적 책임의 수행을 말한다.⁸⁾

이것은 윤리경영이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로 법률적 의미에서의 책임개념에 한정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기업이 그 본연의 목적을 포기하고 도덕적 인격체가 되는 일에만 몰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윤리경영 이론가들이 책임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책임윤리에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 간과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통전적 의미의 책임의 개념을 말하는 이유는, 윤리경영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때,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법률이 정한 시장질서의 준수라는 틀에 갇혀서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자선적 책임 및 환경에 대한 미래적 책임을 포괄하는 총체적 의미의 도덕적 책임의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윤리경영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논의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책임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전문직의 책임을 유전공학과 책임의 문제, 환경문제와 책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구분의 방법 역시 다양하다. 가령, 하트(H. L. A. Hart)는 책임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⁹⁾

8) 전경련18-19

9) Hart, H. L. A.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NY: Oxford Univ. Press, 1968)p.212

(1)역할책임(role responsibility), (2)인과적 책임(causal responsibility), (3)배상책임(liability responsibility), (4)능력책임(capacity responsibility)이 그것이다. 그런가하면, 개인의 책임과 집단의 책임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현재적 책임과 미래적 책임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 가령, 현대윤리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요나스(H. Jonas)의 경우, 책임의 개념과 범위가 '다음세대'에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윤리에 있어서 책임의 개념은 이미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응답의 차원으로 고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니버의 책임개념 안에는 응답자로서의 인간, 대화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인간, 그에게 부딪혀오는 행위들에 응답하는 인간이라는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책임적인 행동을 하려면 자신의 행동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행위에 대한 응답과 해석, 또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책무와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지는 맥락인 공동체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뜻이다.¹⁰⁾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책임의 개념 안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응답(response)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을 통해 구체화되며 대중적 책임(public accountability)과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을 동반한다는 점¹¹⁾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책임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우리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단계에서도 책임의 개념은 포괄적이며 통전적인 것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윤리경영의 이론과 실천에서 책임의 문제를 말할 때, 그것은 단지 경제적이고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책임개념을 넘어 통전적인 책임윤리의 논의들을 귀담아 듣고 학제간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개인윤리적 차원의 책임과 사회윤리적 차원의 책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분을 시도하였던 뒤르켐(E. Durkheim)이나 라인홀드 니버(R. Niebuhr)의 논의에서, 우리는 개인의 덕성과 시스템 요소의 차이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도에 넣어 본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기업내부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으로서의 책임적 존재이다. 나아가 자연인의 범위를 벗어난 법인이나 집단의 이름으로 시행한 행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문제이겠고, 한 사람이 전체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일 역시 책임의 적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 요컨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분명한 실천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인성과 함께 시스템적 요소, 즉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요소가 적절히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준법담당관 또는 윤리감독관 및 사외이사 등을 임명하거나 그들의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개인윤리적 요소와 사회윤리적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준법담당관을 홍보차원에서 임명하거나 형식상의 요건만 갖추려 하는 경우, 그것은 윤리경영이라기 보다는 기업경영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윤리에 대한 매니저를 임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윤리담당관이 연고주의나 개인의 감정에 의해 저지르는 악행을 시스템에 의해 방지는 일과 함께 그들 각자의 인성에 대한 검증과 신뢰가 개인의 차원 및 제도의 차원에서 동시에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0) 임성빈, 21세기 책임윤리의 모색, 장신대출판부, 2002, p.89.

11) 임성빈, 같은 책, p15.

또한 위반자 처벌체계를 구축했다고 명문화하거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정해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으로서의 덕성과 소양의 문제도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책무의 중요성에 대한 자율과 함께 책임의 엄격함이 동시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경영을 책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에 반드시 그 개인윤리적 차원과 사회윤리적 차원이 나란히 고려되고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영학 이론에서 인사관리 분야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요소인 동시에 경영학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한 부분으로 사료되나,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책임의 공동체적 차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윤리경영의 뿌리가 되는 기업윤리의 근본문제에 대한 검토 내지는 기업활동의 목표에 관한 책임윤리적 논의라 할 수 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향이며, 그 이윤추구의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묻는 과정에 윤리경영을 하나의 답으로 상정할 수 있다면, 윤리경영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도 책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이 재무적 성공을 앞당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윤리경영은 기업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기업활동의 목표를 부의 창출 그 이상의 것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본 연구만의 특징적인 제안이자 기독교적 경제윤리의 특징이 반영된다. 이제까지 기독교윤리는 청지기적 경제윤리를 비롯하여 루터와 칼빈에게서 발견되는 직업소명사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을 다루어 왔다. 또한 경제정의와 토지정의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들이 성서적 배경을 전제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더욱이 현대기독교윤리학에 있어서 경제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영미계열의 신학자들은 물론이고 리히(A. Rich)를 비롯한 유럽의 신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들 각자의 이론을 섭렵하여 나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최근의 기독교적 경제윤리의 요점을 간추린 한 문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가령,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논의의 결론은 경제행위가 이웃사랑의 실현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특히 경제정의란 경제의 주체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근본되는 계명인 이웃사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¹²⁾ 그리고 자기-나눔(self-sharing), 이웃 위하기(other-regarding), 그리고 공동체형성을 위한 사랑(community-forming love)이 구현되는 것이야말로 경제윤리가 이윤추구를 넘어 지향해야 할 기준이라는 주장에¹³⁾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안적 경제질서의 모색이라는 또다른 논의를 동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에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다만, 윤리경영의 방향성과 연관지어 말할 수 있다면, 기업의 경영행위가 이윤추구를 최종목표로 삼는 것일 때, 많은 윤리적 부담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윤리경영이라는 주제에 국한하여 말한다면, 윤리경영이 보다 탁월한 의미에서 윤리적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윤추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함께 그 이상의 것, 곧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유통 전반에 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이상적 목적의 설정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이다.

12) 임성빈, p.209

13) 임성빈, p221에서 재인용, Migliore, D.,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91)

Ⅳ. 나오는 말

누군가의 지적처럼, 현대사회와 윤리의 관계는 윤리의 위기인 동시에 위기의 윤리이다. 전통적인 틀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윤리적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위기에 빠진 현대사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윤리를 통해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윤리경영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윤리경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그 이론적 발전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윤리경영을 선언한다고 해서 기업이 윤리적인 이미지를 획득하거나 면죄부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윤리적 정당화의 레테르가 아닌 일종의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며 미래적인 책임의 선언이며 해야 할 의무가 많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경영은 재무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방향성을 상실해서는 안될 것이다. 윤리와 경영의 만남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윤리경영’(moral management)이 도덕에 대한 지배인 역할을 자임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의 책임의 각성이 항상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핵심에 개인과 집단의 차원에서 공동체와 절대자에 대한 신실한 응답적 자세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therton, J., *Christianity and the Market: Christian Social Thought for our Times*. (London: SPCK, 1992)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1)
- Lebacqz, K., *Six Theories of Justice: perspectives from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ethics*. (Minneapolis: Augsburg, 1986)
- McCoy, C., *Management of Values: the ethical difference in corporate policy and performance*. (Boston: Pitman, 1985)
- Novak, M., *The Catholic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Y: Free Press, 1993)
- Migliore, D.,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91)
- Reich, R., *The Work of Nations: preparing ourselves for 21st century capitalism*. (NY: Knopf, 1991)
- Rion, M., *The Responsible Manager: Practical Strategies for Ethical Decision Making*. (Harper & Row, 1989)
- Scott, M., Howard R., *Companies with a Conscience: intimate portraits of twelve firms that make a difference*. (NY: Citadel, 1994)
- Wogaman, J. P., *Making Moral Decisio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 _____ *The Great Economic Debate: an ethical analysis*. (Philadelphia: Westminster, 1977)
- 전경련 윤리경영 T/F 팀, 윤리경영: 이해와 실천 FKI 미디어, 2004
- 허승호 외, 윤리경영이 온다. 동아일보사, 2004.
- 한홍렬 외, 윤리경영이 경쟁력이다.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4
- 박재린 외, 기업윤리론(21세기 윤리경영의 시대), 무역경영사, 2004
- 마누엘 G 벨라스케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역, 기업윤리, 매일경제신문사, 2003
- 박헌준 편, 한국의 기업윤리, 박영사, 2000
- 조셉 위란트/ 김상룡 역, 거버넌스 기업윤리, 도서출판 이화, 2003
- 임성빈, 21세기 책임윤리의 모색, 장신대출판부, 2002
- Schweiker. W., / 문시영 역, 책임윤리란 무엇인가? 대한기독교서회, 2001
- Johnson. D., ed / 이태식 외 역, 엔지니어 윤리학, 동명사, 2000
- Cruger. D., / 임성빈 역, 급변하는 세계와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 신기형, 기업에 대한 기독교윤리적이해, 미간행발표문, 한국기독교윤리학회-복음주의윤리학회 공동학회 발표문. 2004
- www.ks.ac.kr / '21세기 기업모델 윤리적 기업'
- www.koreapost.co.kr / 전경련 '기업윤리실태조사보고서'